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5호 【루계 제23007호】 주체99(2010)년 2월 24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 설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총진군의 나팔수가 되자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전국기자, 언론인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이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이번 대회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강화발전과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인 대회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기자, 언론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군나팔수이다》**를 보내시여 선군시대 출판보도물건설과 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붓대와 마이크로 혁명의 수뇌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선도해나가고있는 우리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커다란 믿음과 기대의 표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은 주체언론의 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대고조시대의 언론대강이며 기자, 언론인들이 오늘의 총진군의 앞장에서 진군나팔수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의 전체 기자, 언론인들은 총대와 함께 붓대를 중시하고 우리의 출판보도물을 선군혁명위업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출판보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신문, 통신,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출판보도활동을 전진하는 시대에 확고히 따라세워왔습니다.》

혁명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사회주의언론의 선도자적역할은 붓대의 위력을 깊이 통찰하고 그를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에 의해서만 비상히 높아지게 된다.

일찌기 혁명과 건설에서 언론을 중시하고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며 전투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오시는 지난 10여년간 출판보도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혁명적출판보도물건설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고 선군시대 언론의 지위와 역할이 최상의 높이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기자, 언론인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문필가들에게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수 있는 글감들도 안겨주시고 수많은 기사, 편집물들을 지도하여주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며 기자, 언론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신분도 어버이장군님이시다.

대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출판보도물이 시대를 선도하며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사상정신력을 무섭게 분출시키는 선군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는것을 긍지높이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는 혁명의 수뇌부와 사회주의조국과 운명공동체를 이룬 우리의 전체 기자, 언론인들의 투철한 사상정신세계를 과시한 일심단결의 대회였다.

우리의 기자, 언론인들에게는 위대한 령도자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적전위대, 제1나팔수가 되는것은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최상의 영예이며 긍지이다.

지난 기간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전체 군대와 인민을 수령결사옹위투사로 키우고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전위적역할을 하여왔다. 우리 조국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경제강국의 령마루에로 비약하고있는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주체언론의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기자, 언론인들은 천만군민이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필승의 신념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국을 륭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으로 빛내여나가는 기자, 언론인들의 대오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대회는 당의 위업,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진격의 나팔수가 되려는 기자, 언론인들의 철석의 의지를 과시하고 우리의 사상진지의 공고성과 위력을 다시금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는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언론의 위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전진과 혁신의 대회였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의 대고조진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전체 인민이 최후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출판보도물의 동원자적위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언론총공세를 벌려 오늘의 대전투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킬데 대한 문제, 기자, 언론인대오의 정예화를 실현하며 창작적앙양을 일으켜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선군시대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더욱 심화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대회를 계기로 우리의 출판보도사업은 당의 의도와 선군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되게 되였으며 주체적출판보도물건설과 활동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려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기자, 언론인들앞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사상리론과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진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언론총공세를 힘있게 벌려 강성대국의 승리를 앞당겨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전체 기자, 언론인들은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선전공세를 더욱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출판보도물들이 당의 사상과 정책의 정당성,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선전을 심도있게 벌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과학성과 진리성,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며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의 위력을 떨치기 위한 언론공세를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화원을 더 풍만하게 가꾸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신념교양을 강화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락관주의와 계속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강성대국의 미래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상하고 문명한 정신도덕적, 정서적풍모를 지니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온 사회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해나가도록 선전공세를 강화해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진격의 제1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언론이 먼저 끓어야 천만심장이 끓고 언론이 앞서나가야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는데 언론전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종군기자의 정신으로 경공업과 농업,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과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경제전선의 중요전투장들과 대고조전선들에서 현지보도조와 방송분견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과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언론전의 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령도밑에 변이 나는 조국의 현실을 반영한 격동적이고 호소적인 기사편집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신념과 조선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민족자존의 정신력, 강성대국의 대문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신심과 락관, 대중적영웅주의정신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과 전투적일본새가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는데서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반동적사상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언론전의 견결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적과의 대결전에서 붓대의 위력은 매우 크며 통신과 방송의 전파가 뚫고들어가지 못할 요새는 없다.

기자, 언론인들은 높은 계급의식, 투철한 대적관념을 가지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폭로분쇄하며 전격전, 집중포화, 섬멸전의 언론공세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공세를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반제투쟁의 필봉을 높이 들고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참된 교양자가 되여야 한다.

현시기 언론출판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자, 언론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오직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색하고 활동하며 붓대와 마이크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사상적근위대가 되여야 한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 로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출판보도활동을 벌리며 주체성과 인민성을 견지할데 대한 우리 당의 언론활동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언론활동에서 낡은 틀과 격식을 마스고 모든 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실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실력경쟁바람, 명작창작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활동방식, 사업기풍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시대적요구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현실보다 앞서나가는 사상적기수가 되여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창조하고 변혁하는 우리 당의 출판보도일군답게 혁신적인 안목으로 취재집필활동을 대담하고 참신하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모든 언론출판기관들에서는 출판보도물이 자기의 고유한 얼굴을 가지도록 특색있게 만들고 그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신문, 통신, 방송, 잡지와 도서들이 대중교양과 당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출판보도기관들에서는 당에 끝없이 충직하고 실력있는 새 세대 기자, 언론인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여 능력있는 필진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언론총공세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출판보도부문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이 출판보도혁명에서 이룩한 업적을 빛내여나가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기자, 언론인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혁명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언론출판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국기자, 언론인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기자, 언론인대회 참가자들이 23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총대와 함께 붓대의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언론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기자, 언론인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열화같은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이 촬영에 함께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선군혁명대오의 전렬에서 천만군민을 대고조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진군나팔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우리 당 력사와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며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기여할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 정 일 원 수 각 하

최고령도자이신 원수각하

나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과 왕족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건강장수하실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영웅적귀국인민의 복리를 위한 력사적이고 애국적인 위업수행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멸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조선의 해방자이시고 어버이이신 걸출하신 김일성주석각하의 가장 훌륭한 후계자이신 김정일원수각하께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건설과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오시였습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나의 존귀하신 부모님들에게 계속 베풀어주신 당신의 모든 호의와 배려에 대하여 가장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는 최고령도자이신 원수각하께 나의 가장 숭고하고도 따뜻한 경의를 표합니다.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2010년 2월 9일 프놈 뻰

평 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동 지

나는 당신의 탄생일 (1942년 2월 16일—2010년 2월 16일) 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와 그리고 오늘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형제적조선인민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확고히 견지하여 온갖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조국보위와 건설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여 행복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형제적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로선에 따라 조선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당과 국가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친선, 협조를 위하여 끊임없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숭고한 위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중앙국방 및 안전위원회 위원장

쭘말리 싸이냐쏜

2010년 2월 15일 비엔티안

평 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일 각 하

각하

나는 각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훌륭한 기회에 당신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복리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이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면서 우리 두 인민들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노력해나갈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떼플리까

2010년 2월 9일 알좌자이르

평 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일 각 하

나는 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대통령

기르마 월데기오르기스

2010년 2월 10일 아디스 아바바

평 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존경하는 김정일각하

나는 존경하는 당신의 탄생일을 맞으며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발전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훌륭한 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존경하는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발전,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

2010년 2월 11일 울란바따르

평 양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 정 일 동 지 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는 탄생일을 맞으시는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복리를 누리실것과 당과 국가활동의 모든 부문들에서 성과를 이룩하실것을 축원합니다.

당신께서는 당과 국가활동가로서의 모든 단계를 거치시고 모든 정권기관 운영에서 커다란 경험을 소유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복리를 위한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고계십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신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선군혁명로선을 견지하고있습니다.

당신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지지를 받으며 김일성동지께서 기초를 닦아놓으신 로씨야련방과의 친선의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저는 탄생일을 맞으시는 당신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시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실것을 축원합니다.

로씨야련방 련방회의 국가회의 부의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웨. 웨. 쥐리놉스끼

2010년 2월 5일 모스크바

평 양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 정 일 각 하 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전체 성원들은 2010년 2월 16일 각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지난해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올해 인민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다시 일떠섰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은 조선인민이 앞으로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조선인민의 번영을 위하여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하디 우또모
총서기 아미르 샴수딘

2010년 2월 1일 쟈까르따

평 양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 정 일 각 하 께

저는 각하의 탄생일을 맞으며 저자신과 그리고 이란정당들의 집 중앙리사회 성원들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조선인민들사이의 친선과 이란정당들의 집과 조선로동당사이의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란정당들의 집 중앙리사회 위원장

호쎄인 카쉐피

2010년 2월 8일 테헤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금도동지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을 만났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금도동지가 23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김영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호금도동지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단단장이 전하였다.

호금도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하여 드릴것을 대표단단장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얼마전에 조선을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대표단을 친히 만나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두 나라는 외교관계설정 60돐을 경축하고 《중조친선의 해》와 관련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고 하면서 중조친선은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며 이 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선동지들이 중국의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고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형제적조선인민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여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 대외관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 성원들, 최진수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왕가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한편 이날 김영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왕가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본사기자

농장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 금성농장에서 — 본사기자 강 정 민 찍음 — 김화군

선군정치의 위대성으로

토산군 북포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직관화한 선전물들을 만들어 여러곳에 게시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이곳 당조직에서는 농장초급일군들이 당보를 비롯한 출판보도물에 실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과 관련한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서 종 남

모든 일에서 첫 순위—인민생활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이 전투적구호가 어찌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더더욱 뜨겁게 울려주며 혁명열로 세차게 높뛰게 하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구호에 인민생활문제를 하루빨리 풀어 우리 인민의 념원을 가장 훌륭히 실현해주시려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숭고한 지향과 열화같은 사랑이 어려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일찌기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오늘도 그 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모든 일에서 첫 순위는 인민생활이다!

이것은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생종이공장건설을 다른 공장건설보다 앞세워 밀고나가며 원료, 자재를 선참으로 보장해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을 밀고나가도 그 규모나 생산액에 앞서 인민생활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대상인가 하는것부터 따져보시고 그 중요성과 순차를 규정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보다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늘 생각하시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원대한 구상으로 밤을 지새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후방에서 전선으로 강행군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에만도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2백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숭고한 애국애민의 열정으로 빛나는 우리 장군님의 령도는 그대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와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과 같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를 펼쳐놓을수 있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도록 하려는 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있습니다. 인민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그처럼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나의 가슴에 차넘칩니다. …

이번에 우리 나라 굴지의 종합적대화학기지인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우리 민족의 자랑인 주체섬유, 비날론솜이 폭포처럼 쏟아져 천만군민을 끝없는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게 한 대경사는 철두철미 어버이수령님의 념원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르기마련이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올해공동사설을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 첫 시작부터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선군조선의 격동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인민의 무릉도원인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거세찬 발현이거니 그 신념, 그 의지가 어떤것인가를 뜻깊은 10월의 대축전과 더불어 력사는 다시금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국

높은 문화수준은 대고조시대 일군들의 중요한 자질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 시대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총진군에서 송풍기적역할을 다해나가자면 높은 혁명성과 문화수준을 지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문화수준문제는 지식수준, 도덕수준, 정서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은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문화수준이 높아야 전면적으로 발전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될수 있으며 참다운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될수 있다. 누구나 아는것만큼, 능력이 있는것만큼 받아들이고 행동하기마련이다.

문화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다. 그런것만큼 일군들은 누구보다 박식하고 문명하고 고상해야 한다. 일군들이 문화수준이 낮으면 사업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할수 없으며 대중과의 사업도 그들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진실하고 능란하게 할수 없다.

일군들의 문화수준문제는 시대가 전진하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밑에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다. 일군들이 격동적인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성과 고상한 문화수준을 겸비하여야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리며 대중의 열정과 투지를 천백배로 분출시키고 맡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오늘의 선군시대에는 아는것이 많고 락천적인 일군,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내는 만능의 일군이 필요하다. 문화혁명은 일군들부터 해야 하며 일군들일수록 문화수준이 더욱 높아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현실은 일군들이 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이 선군시대 혁명의 지휘성원, 대중의 교양자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당의 의도에 맞게 대고조진군에 세찬 열풍을 불어넣는 송풍기적역할을 원만히 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수준을 지니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뜻도 지향도 숨결도 함께 해나가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의 대고조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과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일군들이 혁명의 송풍기가 된다는것은 전체 인민의 심장이 위대한 장군님의 지향과 의지로 고동치고 장군님의 강행군기상과 애국의 열정으로 높뛰게 한다는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대고조의 승리가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일군들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넘치는 고결한 충정의 열도를 더욱 고조시키자면 그들속에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침투시켜 대중이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문화수준, 특히 지식수준이 높아야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정확히 포착하고 옳은 집행대책을 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장군님의 기상과 본때로 투쟁해나가도록 이끌어줄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과 실천은 비상히 웅대하고 창조와 변혁의 세계에는 끝이 없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해나가도록 하시는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로부터 우리 인민이 발휘해야 할 문화정서생활기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수준을 지니는것은 천만대중이 위대한 장군님과 뜻과 정이 통하고 장군님의 배짱과 기질을 닮은 참된 혁명가로 삶을 빛내이도록 하며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비결로 된다.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는 당과 조국앞에 큰일을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 일군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수양해나가는 다재다능하고 박식한 일군들이다. 모든 일군들이 높은 문화수준을 지니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장군님의 뜻과 구상을 대중속에 깊이 심어줄 때 온 나라에는 대고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될것이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수준을 소유하는것은 능숙한 사업전개력으로 대중의 혁명성과 창의창발성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대중의 열의는 일군들이 뚜렷한 목표와 투쟁방향, 옳은 방법론과 대책을 세우고 이끌 때 충분히 발휘되게 된다. 모든 전선에서 대변혁을 일으켜야 하는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일군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해가지고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대중은 말보다도 실천을 앞세우는 일군, 무슨 일이나 막히는데가 없이 척척 풀어나가는 일군을 더 믿고 따른다.

오늘날 우리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조직전개해나가는 묘술은 다른데 있지 않다. 왕성한 일욕심과 능숙한 사업전개력, 세련되고 로숙한 사업방법들은 다 문화수준이 높은 일군들에게서 나온다. 일군들이 여러 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녀야 사업을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작전하고 밀고나갈수 있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도들을 찾아내여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문화수준이 높은 일군일수록 구령을 내리기 전에 치밀한 작전을 앞세우고 그 어떤 어려운 과제가 나서도 신속한 대책을 세우며 배심든든하게 일판을 벌려나가기마련이다.

성강의 로동계급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를 빛나게 완성하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후방사업에서도 시대적본보기를 창조할수 있은것은 중요하게 그곳 일군들의 문화수준이 높은것과 관련되여있다. 성강의 일군들처럼 능숙한 조직전개력으로 대중의 심장에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는 일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남먼저 북채를 잡고 앞장서 내달리는 일군이 대고조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수준을 지니는것은 군중과의 사업, 대중의 사상과 마음과의 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대중의 사상의 힘, 정신력을 발동하자면 그들의 심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고 그들의 요구와 의사대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있다. 기름우에 뜬 물방울처럼 대중과 호흡을 하지 않는 일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줄 모르는 일군은 송풍기적역할을 다해나갈수 없다.

군중과의 사업은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 나이와 수준이 서로 다른 광범한 사람들을 대상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문화수준이 높아야 대중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준비정도와 심리에 맞게 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사업권위도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세워지게 되고 일군들의 실적도 군중과 한데 어울리는 속에 높아지게 된다.

문화수준이 높은 일군일수록 대중과 교감도 잘하고 대중의 마음도 들여다볼줄 안다. 아무리 열성이 있고 각오가 높은 일군이라도 문화수준이 낮고 정서가 메마르면 대중은 잘 따르지 않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로동자들속에 들어가면 기름냄새가 나고 농민들속에 들어가면 거름냄새가 나게 사업해야 하며 청년들속에 들어가면 패기있게 사업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때와 장소에 따라 문학적인 말을 하여야 할 때에는 문학적인 말을 하고 유모아를 써야 할 때에는 유모아를 쓰며 노래를 불러야 할 때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일이나 대중의 심리에 맞게 능란하게 처리하는 다재다능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 박식한 일군, 인상이 좋고 인정미가 넘치는 일군이 바로 인민이 좋아하고 대고조시대가 요구하는 일군이다.

오늘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일군들은 하나같이 높은 문화수준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생산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부터 헤아리며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으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런 사업기풍은 령도자의 두리에 대중을 굳게 묶어세우고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성원, 대고조진군의 송풍기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정 수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업적을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기념일을 맞는 각지 농촌들에서

선군혁명령도와 더불어 더욱 빛나는 농촌테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세의 열풍으로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른 2월의 사회주의협동벌에 위대한 농촌테제의 만세소리 높이 울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6돐, 뜻깊은 력사의 이날을 맞으며 우리는 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전변상을 긍지높이 펼쳐본다.

백두산기슭으로부터 동해천리, 서해천리 그 어디에 가보아도 좋다. 우리 나라 농촌 곳곳에 선경마을이 생겨났고 수십만정보의 울망졸망하던 뙈기논밭들이 대규모의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였으며 자연흐름식물길이 뻗어나가 수리화의 위력높이 떨치고있다.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당의 콩농사방침,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곳곳에 현대적인 닭공장들과 돼지공장, 오리공장, 염소목장, 타조목장, 토끼종축장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 일떠서 은을 내고있는 이 자랑스러운 현실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하기에 농촌테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마흔여섯번째의 년륜이 새겨진 뜻깊은 이날을 맞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나는 승리의 길에 새겨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기 위해 바쳐오신 로고와 헌신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은 10여년전 봄날을 먼저 생각한다. 절정에 오른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압살책동, 참혹한 자연재해와 식량난… 조선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의문의 전파들이 우주공간을 메우던 그날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선에서 최전선에로의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창도군 대백리에 들어섰을 때는 어느덧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승용차의 차창으로 끝없이 흘러들고 흘러가는 울망졸망한 뙈기논밭들…

《고난의 행군》으로 상처를 입은 조국의 대지를 보시고 얼마나 가슴아프시였으면 승용차에서 내리신 우리 장군님께서 울망졸망한 뙈기논밭들을 바라보시며 강원도의 토지정리는 언제부터 생각해온 문제라고, 대담하게 강원도의 토지부터 정리하자고 말씀하시였으랴.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울리신 대자연개조사업의 장엄한 포성은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알리는 서곡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안남도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민들을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자고 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이 어떤것인가를 또다시 절감하지 않았던가.

잊을수 없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그 나날들과 더불어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개천—태성호물길과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이 뻗어나갔으며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범안리의 선경》, 《한드레벌의 지평선》, 《류다른 콩풍경》, 《미곡벌의 가을풍경》과 같은 사회주의선경들이 펼쳐지였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천지개벽인가.

지난해 가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황금파도 설레이는 풍요한 협동전야와 특색있게 건설된 새 마을들, 문화후생시설들을 바라보시면서 농장이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며 이 자랑찬 현실은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 과연 이 희한한 현실은 어떻게 꽃펴난것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가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습니다.》

미곡리만이 아닌 우리의 농촌 그 어데서나 울려나오고있는 이 찬사의 목소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꽃피우고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지난해 가을 또다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일매진 규격포전들이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드넓은 전야를 바라보시면서 동해안농사의 본보기농장으로, 오곡백과 무르익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세기적변혁이야말로 집단주의를 생리로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는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농촌들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는 실로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하기에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사회주의농촌의 자랑찬 현실을 긍지높이 펼쳐보며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해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칭송하며 만세의 환호를 높이 올리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생명수 철철 넘쳐흐르게

개천—태성호물길관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그날부터 해마다 크게 은을 내는 수백리 개천—태성호물길!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의하여 건설된 개천—태성호물길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평안남도를 비롯한 드넓은 곡창지대들에 마를줄 모르는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젖줄기로 그 이름 높이 떨치고있다.

정녕 오늘도 대동강의 단물을 자연흐름식으로 서부지구 협동벌에 흘려보내여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는 개천—태성호물길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개천—태성호물길이 자연흐름식물길로서의 위력을 떨치는가 못 떨치는가 하는것은 이 물길관리운영을 책임진 개천—태성호물길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시기에도 논농사에서 물은 생명수라고 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대각청년언제의 설비들의 보수정비와 흙물길, 물길굴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개천—태성호물길이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였다.

지난해 여름이였다. 갑자기 내린 큰비로 수백m의 물길구간이 위험하게 되였다. 언제 또 큰비가 내릴지 모르는 조건에서 물길보수전투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였다. 그러나 얼마 안되는 관리소의 로력으로는 아름차고 방대한 전투였다. 하지만 이들은 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올해농사성과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물길을 하루빨리 보강하자.

구체적인 전투조직사업이 이루어지고 관리소의 모든 력량이 물길보강전투에 진입하였다. 전투는 낮에 밤을 이어 세차게 벌어졌다.

이렇듯 저수지들에 물이 가득차있어야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이들의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저수지물을 많이 뽑아쓰는 한여름에도 물길로는 대동강물이 거침없이 흐르고 물길주변에 있는 저수지들에 물이 가득차 바다마냥 출렁이는 현실이 펼쳐져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도 관리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개천—태성호물길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물길관리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떨쳐나선 이들은 위험구간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고 이악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또한 저수지들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길로 대동강의 단물이 거세차게 흐르도록 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지금도 개천—태성호물길을 따라 10월의 풍요한 가을을 불러오게 될 생명수가 거침없이 흐르고있다.

본사기자 문 길 수

방문기

독산기슭에 펼쳐진 선경마을

단천시 령산협동농장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을 남부러운것 없는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농사도 잘하고 고향마을을 선경으로 꾸려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난 단천시 령산협동농장을 찾았다.

마을앞으로 미끈하게 곧추뻗은 도로, 영생탑을 중심으로 번듯하게 일떠선 10일유치원, 진료소와 상점을 비롯한 규모있게 건설된 공공건물들, 산기슭에 즐비하게 들어앉은 살림집들…

듣던바대로 령산마을은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같았다.

《자기 힘을 믿고 이악하게 투쟁하면 행복의 락원이 펼쳐진다는것을 알고 더 좋은 래일을 가꾸어가는 우리 령산리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농장일군은 이렇게 말하며 농산제2작업반으로 이끄는것이였다.

특색있게 건설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과 탈곡장, 분조창고들 그리고 돼지, 닭, 오리가 욱실거리는 집짐승우리와 먹이가공실…

이 작업반만이 아니였다.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서 우리는 농촌테제를 받들고 자기가 사는 고장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꾸리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소중한 마음을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어둠이 깃들무렵 우리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5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줄지어 서있는 남새제2작업반마을에 들어섰다. 봄철이면 꽃속에, 여름이면 푸른 숲에, 가을이면 과일속에 묻힌다는 살림집들은 바라볼수록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불빛밝은 어느 한 가정을 찾았다. 능률높은 새형의 탈곡기창안자로 소문난 렴남일동무의 집이였다.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을 돌아보느라니 부러운것 없는 살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자체로 건설한 발전소의 전기로 텔레비죤도 보고 밥도 짓고 잠자리도 따뜻하게 덥히고있으니 날마다 행복은 커만 간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도시부러운것이 없다고 하면서 기쁨을 더해준다는 안해의 자랑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가난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이 령산땅이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선경으로 전변된 오늘의 천지개벽을 어찌 농촌테제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온 이 고장 사람들의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업적을 빛내여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때 우리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동행한 일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우리는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이 고장 사람들의 행복의 웃음꽃 더욱 만발할 래일을 기쁜 마음으로 그려보며 마을을 떠났다.

본사기자 서 승 호

기술자들이 한마음되여

회양군 강돈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농장의 기술자들이 기발을 들고 앞서나가고있다. 이들은 농업생산에 앞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세웠다.

농업생산에서 생물활성퇴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농장의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다. 이들은 생물활성퇴비를 땅의 지력을 높이는 《보약》이 되게 생산하도록 과학기술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또한 기술강습도 정상화하여 농장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고있다. 그리고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 맞게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씨뿌리에 필요한 중소농기구생산과 모내는기계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기계화작업반의 기술자들도 작업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농업생산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종합적기계화의 위력 떨치며

대홍단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밭갈이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감자농사의 모든 공정을 기계화하여야 합니다.》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실현!

꿈속에서조차 바라지 못하였던 일대 사변과 같은 놀라운 현실이 오늘 대홍단군에 펼쳐졌다.

—감자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들을수록 희한하다. 백두삼천리벌을 찾는 사람들마다 농기계들의 발동소리가 높이 울리는 드넓은 포전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봄이면 감자파종기들이 포전을 누벼가는가 하면 여름이면 분무기를 단 뜨락또르들이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김을 잡고 풍요한 가을이면 기계화군단을 방불케 하는 감자종합수확기들이 주먹같은 감자알들을 캐내고있으니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대홍단군의 자랑이 어찌 이뿐이랴. 돼지목장들에서 나오는 물거름을 실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며 감자포기들을 살찌우는 모습도 볼만 하고 모든 조건을 그쯘히 갖춘 군농기계작업소에서 새것처럼 수리정비되여 나오는 각종 농기계들의 모습 또한 멋이 있다.

나라없던 그 세월 화전민들의 한숨소리만이 들리던 이 고장, 가대기와 호미농사가 전부였던 여기에 종합적기계화실현의 자랑찬 현실이 펼쳐졌으니 어찌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이 격정으로 끓어오르지 않을수 있으랴.

사회주의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된 백두삼천리벌의 놀라운 현실앞에서 사람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고있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대홍단군을 종합적기계화의 본보기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백두삼천리벌에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감자심기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공정을 기계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수많은 뜨락또르들과 자동차, 련결농기계들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 위대한 사랑, 그 뜨거운 은정속에서 오늘의 천지개벽의 새 모습이 펼쳐질수 있은것이 아닌가. 하기에 대홍단군사람들은 종합적기계화의 튼튼한 토대가 올해 감자농사에서 더 큰 위력을 떨치도록 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농기계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이들은 지난 시기보다 부속품의 종수와 수량을 더 늘인데 맞게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매일 실적을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농기계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보답의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농기계수리에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땀을 바쳐간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모든 농장 기계화작업반들의 농업근로자들이 농기계들을 눈동자와 같이 다루고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거름실어내기를 비롯한 농사차비에서 높은 실적을 냈다. 10여만의 질좋은 거름이 포전에 실려나갔다.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종합적기계화의 위력을 더욱 떨칠 때 풍년가을을 안아올수 있다는 확신에 넘쳐 당면한 감자농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영광의 땅에 또다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으로 흙갈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대천군 은흥협동농장 농장원들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 진행

【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가 2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내각총리 김영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내각성원들,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일군들, 도, 시, 군당, 정권기관,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련관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오수용내각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돌격전이 과감히 전개되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현실이 펼쳐진 지난해에 우리 당의 국토관리총동원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더욱 과시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며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국토관리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을 안아오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전체 인민이 떨쳐나 자기 고향,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해동안에 수억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었으며 새 도로들을 건설하고 기술개건하여 나라의 도로망을 더욱 합리적으로 형성하였다.

강하천들의 제방 및 호안공사와 해안방조제보수공사를 진행하여 큰물과 해일의 피해를 막고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을 뿐아니라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나라의 자원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전환을 이룩하였다.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등 여러 도와 시, 군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으로 대담한 작전을 펼치는 동시에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방대한 국토관리총동원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 국토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가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행사하자면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1월 평안북도의 도로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국토관리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하면서 뜻깊은 올해에 당의 국토건설구상을 받들고 조국강산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발휘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국토관리사업에 광범한 군중을 적극 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나무모생산체계를 세우고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함으로써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로관리사업을 잘하고 도로건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강하천들과 해안방조제들을 그 어떤 큰물과 해일에도 끄떡없게 건설하고 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도의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고 도시와 농촌들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도시경영사업과 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들고 국토건설과 관리사업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체적지혜로 찾은 혁신의 지름길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한 제남탄광 2갱 채탄중대에서

제남탄광에는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는 채탄중대들이 수없이 많다. 얼마전 우리가 들렸던 2갱 채탄중대도 탄광적으로 손꼽히는 혁신자중대의 하나이다. 대고조의 첫해인 지난해에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한 중대의 탄부들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1월에 이어 2월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중대의 하루생산실적은 100일전투가 절정에 올랐던 지난해 12월의 하루평균실적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 중대가 탄광적으로 손꼽히는 혁신자중대로 솟구쳐오르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슨 일이나 그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사상적각오와 사업기풍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2갱의 초급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대가 차지한 대부분의 채굴구역은 반복채굴구역이다. 따라서 작업조건은 매우 불리하다고 할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중대에서는 탄부들이 한의 석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들인 품과 노력에 비해 큰 성과가 이룩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중대의 석탄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탄광적인 계획수행에서 앞장서는 단위로 된것은 자체의 구체적인 채굴조건에 맞는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채취률을 높이였기때문이다.

어느날 휴식참에 중대의 초급일군들과 탄부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중대장은 탄부들에게 호소하였다.

《불리한 조건만 론한다면 중대는 언제 가도 혁신자대오에 들어설수 없습니다. 중대의 실정에 맞는 채탄방법을 도입해야 생산을 추켜세울수 있습니다.》

중대장은 탄부들에게 호소한데 그친것이 아니라 허심하게 오랜 탄부들과 기능공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방도를 찾아나갔다. 탄부들속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제기되였으나 중대의 실정에 꼭 들어맞는 방도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때 누군가가 탄상의 밑부분에서 붕괴시키는 채굴방법만 있고 탄상의 웃부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채굴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무심결에 이야기하였다. 통조가 섞인 그의 말에 탄부들이 한바탕 크게 웃으며 그런 채굴방법이 어디에 있는가고 말할 때 중대장은 번개처럼 떠오르는 착상에 무릎을 쳤다. 도면을 펼쳐드니 중대가 현재 차지한 채탄장주변을 에도는 가지갱도들이 몇개 있었다. 따라서 탄상의 웃부분과 중간부분을 갱도들과 련결시킨다면 채탄장을 통채로 타고앉을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석탄을 붕괴시킬 때 집채같은 버럭돌이 채탄장을 메우는 경우 되돌아서야만 했던 일이 거의나 없어지게 되고 적은 품을 들이면서도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었다.

중대에서는 이 채굴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석탄생산을 본때있게 내밀었다. 중대에서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곳 중대의 경험은 석탄증산을 위해 집체적지혜를 합치면서 창조적으로 일해나간다면 불리한 조건을 타파하고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강 명 천

후방기지들을 그쯘히 꾸려놓고

덕지강은하피복공장에서 후방기지들을 튼튼히 꾸려놓고 그 운영을 잘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서 큰 개선을 가져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후방기지들을 꾸리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최근에만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에서는 이미 후방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염소방목지들을 더 크게 확장하고 그 운영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여기에서만도 많은 고기와 젖을 생산보장하고있다. 또한 공장의 부업지들에 대한 관리운영도 잘하여 해마다 많은 콩을 생산하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콩가공기지도 그쯘히 갖추어놓고 합숙생들과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콩우유를 공급해주고있다.

또한 돼지우리를 비롯한 후방기지들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많은 고기를 자체로 생산해내고있다.

이렇게 생산한 고기와 남새, 부식물로 종업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니 대중의 열의는 더욱 높아져 생산에서는 커다란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푸 른 숲 과 씨 앗

구성시산림경영소 방현양묘작업반 반장 리금실동무

우리가 찾은 방현양묘작업반은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중중첩첩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산비탈을 따라 굽이굽이 올리뻗은 나무모밭들사이로 우리는 리금실동무와 함께 걸었다.

《지난해에 씨를 뿌렸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한해후면 숲으로 나갑니다.》

한 밭머리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이렇게 말하며 나무모들을 정답게 어루만지였다. 그의 눈가에는 애틋한 정이 흘러넘치고있었다. 마치도 제살붙이를 애무하는듯.

우리가 언제부터 양묘장에서 일하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한 10년가량 일해옵니다.》

그는 자기가 양묘공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었다. 개천시 보부리에서 나서 자란 그의 어릴적꿈은 리보부녀성과 같은 훌륭한 애국농민이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생활은 그를 숲으로 떠밀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처녀시절 소문난 실농군이였던 리금실동무가 결혼후 남편을 따라 구성시로 이사온 후 어느날이였다. 그는 뜻밖에도 나이많은 산림감독원과 마주앉게 되였다. 우정 품을 놓아 리금실동무를 찾아온 그 산림감독원은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미안한 일이지만 도움을 청하러 왔네. 전에 농사를 했다지?》

《예. 그런데 제가 도울 일이 무엇인지?…》

《손이 많이 가야 낟알이 잘 되는것처럼 산림이란것도 직심스레 거두고 가꾸어야 한다오. 그런데 일손이 바르거던.》

산림감독원은 이곳 산들에 아직 나무심을 자리가 많은데 나무모가 모자라 애를 먹고있다고, 농사경험이 많은 동무가 나무모 키우는 일을 좀 도와줄수 없겠는가고 속심을 터놓았다.

고마왔지만 리금실동무는 한동안 머뭇거리였다. 벼모를 심거나 가을걷이를 하라면 남에게 질 생각이 없었지만 산림일에는 자신이 없었던것이다.

산림감독원에게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한 그날 저녁 리금실동무는 창너머 우중충한 산발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그의 귀전에서는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시찰의 길에서 인민군군인들이 주둔지역에 조성한 울창한 숲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군인들의 애국심을 본받아 온 나라 인민이 떨쳐나서 조국의 산들을 모두 수종이 좋은 나무로 뒤덮인 보배산으로 만들데 대하여 또다시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고 하던 산림감독원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여보, 날이 어두워졌는데 어딜 가려고 그러오?》

《산림경영소엘요. 거기서 지금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날부터 방현지구의 한 산기슭에서는 웬 녀성이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나무씨를 뿌리였다. 리금실동무였다. 래일의 푸른 숲을 그리며 그가 묻어가는것은 나무씨앗이기 전에 애국으로 불타는 마음의 씨앗이였다. 그는 이렇게 양묘공일을 시작하였다.

리금실동무는 처음부터 열심히 배웠다. 오랜 산림감독원들과 양묘공들에게서 나무모 가꾸는 경험도 배우고 소문난 양묘장들에도 찾아가보았다.

그의 일과는 남보다 두세시간 먼저 시작되고 또 그만큼 늦게 끝났다. 얼마 안있어 그는 나무모가꾸기에서 막히는데가 없게 되였다. 나무모의 모양새며 빛갈만 보고도 영양상태를 알아맞히고 대책을 세우는 그를 작업반원들은 《양묘박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늘 안타까운 심정이였다. 아무리 애써도 나무모가 계속 모자라는것이였다. 모를 가지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는 자책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을가?)

그는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노상 이 생각을 하였다. 하루는 집에서 기르는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언뜻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좁은 시루안에서 빽빽하게 자라는 콩나물처럼 나무모도 좁은 면적에서 이렇게 빽빽하게 키워낼수 있지 않을가?)

그리하여 리금실동무네 작업반에 생겨난것이 오랜 양묘전문가들도 깜짝 놀라게 한 두둑식밭이였다.

두둑식포전에서는 이전보다 정보당 3~4배의 나무모가 더 생산되였다. 소문을 듣고 전국각지에서 산림부문 일군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새 나무모기르기방법을 배우면서 이런 좋은 생각을 어떻게 해냈는가고 물었다. 그러면 리금실동무는 얼굴을 붉히군 하였다.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애국자일수록 이렇게 겸손하고 소박한 법이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집단적혁신으로 하여 작업반은 해마다 나무모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작업반이 스스로 맡아나선 방현지구의 수백정보의 산들은 더욱더 푸르러갔다. …

《저게 다 우리가 가꾸는 산림입니다.》

우리와 함께 산을 내리던 리금실동무가 나무들이 들어찬 산발들을 가리켜보였다. 한겨울에도 푸르청청한 잣나무들과 이깔나무들이 촘촘히 들어앉은 산들에서는 3년생으로부터 10년생에 이르기까지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있었다.

저 많은 나무들을 심고 가꾸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는가 하는 우리의 말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보부리에서 살고있는 년로한 그의 어머니가 방현땅에서 사는 딸에게 한번 집에 왔다가라고, 보고싶다는 편지를 막내의 손에 들려보내였다. 그날 리금실동무는 막내동생을 데리고 산에 올랐다.

《저기가 이깔숲이고 이쪽은 잣나무림이다. 그리고 저 골짜기들엔 지금 한창 심고있는중이고…

저기에 아직 나무모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늘 시간이 모자라누나. 그러니 어머니에게 좀 말씀올리렴. 후에 가겠다고. 대신 우리 작업반이 가꾸는 산을 배경으로 나와 함께 사진을 찍자꾸나. 그걸 보면 어머니도 기뻐하실거야.》

기쁨도 행복도 숲에서 찾고 래일의 꿈도 숲에 담아 자래우며 조국의 산림,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일에 온넋을 바치는 방현땅의 참된 애국자,

그는 양묘장에서 충실하게 자란 나무모를 싣고가는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 이렇게 말하군 한다.

《나무들을 잘 심고 잘 가꾸어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혼히 사람들은 세월이 빨리도 흐른다고 말하지만 리금실동무에게는 시간이 늘 더딘듯이 느껴진다.

—나무야, 어서 자라라. 조국의 산들이 더욱 푸르러지게!

그는 이런 소원을 안고 씨를 뿌리고 모를 키운다. 언제인가 작업반원들이 새로 일군 포전에 나무씨를 뿌리는 그를 보고 이제 이 나무가 다 자라 숲을 이룰 때면 반장동무는 할머니가 되겠는데 그때 가선 무슨 일을 하겠는가고 물었을 때였다.

리금실동무는 소리내여 웃으며 말하였다.

《열매따는 사람이 되겠어. 우리 아이들에게 잣씨도 보내주고 맛좋은 머루, 다래도 따서 먹이고… 그러면서 말해주지. 이 할머니처럼 떳떳하게 열매를 따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들도 이 땅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오늘도 그는 양묘장에 씨앗을 뿌린다. 애국으로 아름다운 삶의 꽃을 변함없이 피울 그 씨앗을!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허명숙

리금실동무 (오른쪽에서 두번째)

재령건재공장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대중체육활동

재령건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일하고 생활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조직하는 체육활동에는 간부들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첫 체육의 날이였다. 이날 공장에서는 체육의 날 운영계획에 따라 전체 종업원들이 다 참가하는 집단달리기가 진행되였다.

람홍색공화국기와 붉은기들을 펄펄 휘날리며 공장구내를 벗어나 이웃리 소재지까지 힘차게 달리는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 청춘의 기백이 차고넘쳤다. 대오의 선두에서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종업원들과 함께 달렸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이렇게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체육사업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내밀어왔다.

누구나 마음껏 체육활동을 벌릴수 있게 공장에 배구장, 롱구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들과 기재들을 잘 갖추어놓는 한편 체육경기를 하나 조직해도 몇몇 잘하는 종업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적극 참가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체육기술을 련마하며 혁명적랑만을 꽃피워나가도록 하였다.

공장에서는 비교적 높은 체육기술을 소유한 종업원들을 작업반들에 골고루 배치하여 체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의욕을 더욱 북돋아주기도 하고 작업반별체육경기 조직요강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워 작업반성원모두가 경기에 참가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종업원들이 작업의 쉴참을 윷놀이, 장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민속유희오락으로 즐길수 있게 공장구내에 오락장도 아담하게 꾸려놓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체육열의는 부단히 높아졌으며 공장에서는 활발히 벌어지는 다채로운 체육활동속에 울려퍼지는 랑만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2월의 체육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날에는 태권도, 롱구, 배구 등 여러 체육소조들의 운영정형에 대한 총화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된 후 작업반별 배구, 탁구, 롱구경기들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응원이나 하던 종업원들도 자신만만하게 경기들에 참가하여 팀의 승리에 적극 기여하였다.

건재생산기지에 차넘치는 대중체육열풍, 이것은 그대로 일터에 대한 애착과 높은 집단주의정신의 든든한 밑천으로 되고있으며 몸과 마음 다 바쳐 자기 고장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해갈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본사기자 오철룡

30년을 하루와 같이

의학과학원 해양의학연구소 부원 황옥실동무

청진시에는 8살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을 하루와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주변관리사업에 자기의 지성을 다하고있는 한 녀성이 있다. 그는 의학과학원 해양의학연구소 부원 황옥실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정과 정신도덕적풍모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과도 대비할수 없이 고상한 인민입니다.》

30년전 어느날 새벽, 깊은 잠에 들었던 어린 황옥실은 아버지가 오빠와 언니들을 찾는 소리에 저도모르게 눈을 떴다. 그는 아버지와 오빠, 언니들이 함께 집을 나서는것을 보고 슬며시 뒤따랐다. 집안식구들은 포항광장쪽으로 가고있었다. 그곳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었다. 옥실은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다음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난 옥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소학교에 갓 입학한 옥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황옥실동무의 새벽일과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접한 그날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맹세다지였다.

《아버지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한생토록 변함없이 이 길을 걷고 또 걷겠습니다.》

그는 매일 이른새벽이면 어김없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하였고 하루일을 끝내면 동상주변에 진귀한 꽃모와 꽃나무도 심고 가꾸며 진심을 다 바쳐갔다.

황옥실동무가 결혼한 다음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 새벽 시집에서는 새며느리가 없어져서 《소동》이 일었다.

얼마후 이른새벽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주변관리사업을 하고 돌아오는 새며느리를 보게 된 시아버지는 온 가족을 모이게 하였다.

《나는 우리 집안에 이렇듯 훌륭한 며느리가 들어온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우리 모두 새아기일을 적극 도와주고 또 그처럼 어버이수령님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가자꾸나.》

그때부터 황옥실동무는 물론 온 가족이 떨쳐나서 관리도구도 마련하며 티없이 순결한 마음을 바쳐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옥실동무의 소행을 료해하시고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얼마전에는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소학교시절에 시작한 그 길을 30년간 변함없이 걸으며 황옥실동무는 오늘도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가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로주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꾸바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호쎄 마누엘 갈레고 몬따노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3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박의춘외무상, 리룡남무역상, 김용진교육상,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호쎄 마누엘 갈레고 몬따노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조선인민과 함께 경축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꾸바와 조선사이의 형제적친선관계는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공고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꾸바당과 정부, 인민의 이름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김기남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준 대경사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강성대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올해는 조선과 꾸바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라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우리는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형제적꾸바인민이 꾸바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중국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 출발

중국을 방문하는 김영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이 2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학효비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세계보건기구 보조총국장 도착

에리크 라로쉐 세계보건기구 보조총국장이 2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손님을 맞이하였다.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떠나갔다

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인 리룡수를 단장으로 하는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위용으로 빛나는 우리의 미래

— 예술영화 《동해의 노래》(제1, 2부)에 대한 반향 —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참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펴납니다.》

우리 동포, 우리 겨레를 태운 사랑의 귀국선이 동해의 파도를 헤가르며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첫 닻을 내린 때로부터 반세기도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예술영화 《동해의 노래》(1, 2부)는 일본땅에 끌려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재일동포들의 불행과 고통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인류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사랑의 배길을 열어 그들에게 진정한 조국의 품을 안겨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노래이다.

온 세계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 《20세기 인류사적사변》으로 격찬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은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동포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사랑의 대용단이였다.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공화국의 해외교포조직 총련을 무어주시고 세계유일의 해외교포대학인 조선대학교를 세워주시여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주신 우리 수령님,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일수록 더 따뜻이 품어안아 키워주는 다심한 어버이의 손길로 총련의 결성과 그 강화발전을 위해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되였다.

민족의 넋을 말살하려는 모진 광풍이 휘몰아치는 일본땅에서 총련조직의 력사적인 탄생이 어떻게 선포되고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온 총련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어떻게 줄기차게 이어져왔는가를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통하여 목격하면서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권위는 총련조직의 영원한 생명선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그리고 위대한 선군령장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시고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며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오늘 총련의 3세, 4세들은 애국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동포들과 그 자녀들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으며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예술영화 《동해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 인민정권기관의 일군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떨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국력이자 해외동포들의 존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의 력사를 감명깊게 형상한 예술영화 《동해의 노래》는 국력이자 민족의 운명이며 해외동포들의 존엄이라는 사상을 새겨주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를 일제에게 송두리채 빼앗기고 수백만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징용》, 《징병》을 비롯한 갖은 명목밑에 죽음의 고역장과 전쟁터로 끌려가게 된것은 결국 국력이 약하였기때문이다.

일제의 채찍아래 마소와 같이 천대받고 억울하게 생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재일동포들의 수난에 찬 과거를 보여주는 영화의 장면들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용서할수 없는 일본의 죄악을 준렬히 고발하고있다.

어제날에는 진정한 조국이 없었던탓으로 이역땅에서 망국노의 설음을 뼈에 새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재일동포들이 오늘은 온 세상이 경탄하는 선군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가슴펴고 나아가는 극적인 현실은 절세의 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것이다.

길가의 조약돌보다도 못한 신세를 한탄하던 재일동포들에게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이라는 높은 존엄을 안겨주시고 그들이 애국애족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 안겨산다는 확고한 신념과 락관에 넘쳐있는 재일동포들이기에 오늘도 일본반동들의 끈질긴 압력과 제재의 회오리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를 모르며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헌신의 자욱속에 우리 인민의 리상이 눈부시게 실현된 지난해에 조국땅에 일어난 세기적인 변들은 우리의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으며 재일동포들에게는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예술영화 《동해의 노래》를 통하여 수령복, 장군복 꽃핀 내 나라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절감할수록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데서 앞장서나갈 맹세가 더욱 불타오르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은 지금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조국인민의 영웅적투쟁은 재일동포들을 더욱 고무격려하게 될것이다.

경공업성 국장 장일호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제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랑의 배길을 따라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그날의 력사적화폭을 감명깊게 형상한 예술영화 《동해의 노래》를 보는 우리의 감회는 참으로 류다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습니다.》

나라없던 지난날 재일동포들이 겪어야 했던 피눈물나는 노예살이가 실재한 사실로 펼쳐지는 영화는 우리 부모들을 비롯한 재일동포 1세들의 눈물겨운 옛 처지를 돌이켜보게 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리는 오늘의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누구나 깊이 생각하게 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동포애와 민족애의 손길이 바다건너 이역땅에 어떻게 잇닿아졌으며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고 천만년 무궁할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숭고한 력사적위업이 과연 어느분에 의하여 실현되였는가를 다시금 깊이 체험하게 되였다.

오늘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국땅에서 시들어가던 재능의 싹을 소중히 품어 거목으로 자래워준 어머니조국을 심장으로 노래하고있다.

조국의 품에 안긴 그때부터 오늘까지 다심한 어버이손길로 세심히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정녕 바다처럼 깊고 한량없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혁명가극의 주인공으로, 국제콩클수상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어버이장군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싶은 격정이 나의 가슴에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저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선군시대 예술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피바다가극단 인민배우 조청미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도착

부이 쑤언 쿠 공업상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이 2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로므니아외무성대표단 도착

게오르게 마게루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외무성대표단이 2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로므니아림시대리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십년을 변함없이

철산군 선주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반장 사춘남동무는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수십년간 사회주의협동벌에 애국의 열정과 성실한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지난 기간 그는 수많은 창의고안,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여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현저히 높일수 있게 하였다.

짬만 있으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탐독하는 그는 뜨락또르발동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 척척 알아맞힌다.

수십년을 기계화초병으로 일하는 나날 그는 많은 기능공들도 키워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온 농장이 농사차비로 들끓는 오늘도 애국으로 끓어번지는 사춘남동무의 열정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다.

로농통신원 방대삼

초소로 달리는 뜨거운 마음들

신흥군 창서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원군사업에 앞장서고있다.

리의 당조직에서는 《원군수첩》을 만들어놓고 해마다 수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인민군대가 강해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담보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후방의 소식이 담겨진 편지를 자주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주어 그들이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여나가도록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특히 그들은 국가적명절이나 기념일때마다 초소에 자식을 둔 친부모의 심정으로 많은 원호물자를 지성껏 마련하여 병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뜨거운 마음을 기울이고있다.

원군을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있는 이곳 농장원들이 성심성의로 보내준 원호물자들은 인민군군인들이 조국을 철벽으로 지켜갈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도록 하고있다.

오늘도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담보하기 위하여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해가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을 위한 원군길에 자신들의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조선화

련방제통일은 조국통일의 유일한 방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하루빨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북남관계의 현실과 민족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통일방도를 선택하고 구현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나라의 통일을 합리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실현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련방제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실과 민족의 절박한 요구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합리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싸우지 않고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련방제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미 30년전에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우리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할것을 밝히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대로만 하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능히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이 방안을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라고 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련방제통일방안은 북과 남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대결과 충돌을 피할수 없다. 온 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상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의 장애로 되지 않는다. 한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할수 있다. 더우기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피줄을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이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안에서 두개 제도가 공존할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우리가 주장하는대로 련방제방안에 의거하면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라의 통일을 공정하게 이룩할수 있다.

련방제통일방안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이바지하는 평화애호적인 통일방도이다.

지금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이 감돌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련방제통일이 아닌 《제도통일》을 추구한다면 또 한차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싸울 필요가 없다. 북과 남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전쟁이 아니라 서로 싸우지 않으면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택해야 한다. 련방제통일방안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로 될것이며 그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련방제통일방안에 배치되는 《제도통일》론은 비현실적인것이며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인 대결전쟁론이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에 기초한 그 무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 《국무총리》는 《국회대정부질문》이라는데서 《정부》가 《통일헌법》을 준비하고있다고 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통일국가의 리념과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떠들었다.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것은 결국 우리의 존엄높은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제도통일》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것만큼 그것은 어느 측에도 접수될수 없는것이며 따라서 《제도통일》시도는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빚어내게 된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이 떠들어대고있는 《제도통일》은 반민족적인 체제대결과 북침전쟁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들이 터무니없이 누구의 《급변사태》를 운운하면서 그 무슨 《작전계획 5029》니, 《비상통치계획》이니, 《통일대계탐색연구》니 하는 각종 북침각본들을 꾸며내고 《선제타격》폭언까지 마구 줴치며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것은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이루어보려는 허황한 망상의 발로이다. 우리 민족은 남조선보수당국이 련방제통일방안을 외면하고 《제도통일》을 추구하면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있는것을 추호도 용납치 않는다.

련방제통일방안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통일방안이다.

련방제통일방안을 대하는 태도와 립장은 통일과 분렬, 평화와 전쟁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6.15통일시대에 련방제통일에 배치되는 낡은 대결시대의 《제도통일》론따위를 들고나오는것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민족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며 북침야망에 환장한자들의 가소로운 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북침통일》의 헛된 꿈에서 깨여나야 하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 천명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인 련방제통일방안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과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이 되는 올해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련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엄 일 규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

어머님의 당부를 새기시며

어느해 12월 24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오랜 시간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하시였다. 협의회가 거의 끝나갈무렵 한 일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이께 오늘이 김정숙어머님의 탄생일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용한 어조로 사실 자신께서는 오늘 어머님에 대하여 많은것을 추억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머님께서는 나라를 통일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릴것을 자신에게 당부하시였다고, 그런데 자신께서는 아직 위대한 수령님께 통일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는 절대로 미룰수 없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탄생일인 뜻깊은 그날 어머님의 당부를 되새기며 조국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굳히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의 정

주체74(1985)년 5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시 진행되고있던 제8차 북남적십자회담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회담을 통하여 예술단과 함께 고향방문단교환사업도 진행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포애의 정을 나누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해야 한다고,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는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언제나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적십자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이 서울로 떠나게 되는 날에도 일군들에게 통일된 조국땅에서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면서 온 겨레가 평양과 서울로 마음대로 오가며 혈육의 정과 동포애의 마음을 나누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완전히 잇자면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자나깨나 분렬로 고통받는 겨레를 생각하시며 그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숭고한 동포애의 정을 뜨겁게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정녕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통일의 구성이시다.

조국통일은 민족대단결로

주체78(1989)년 4월 2일 평양에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남조선의 통일인사와 우리 일군들사이에 회담이 진행되고 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동성명이 채택된것은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성취하려는 우리 인민의 애국투쟁의 길에서 하나의 큰 디딤돌을 마련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의 의지입니다, 통일이 애국이고 분렬이 매국이듯이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은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속에 남녘의 동포들과 손을 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의지를 북돋아주었다.

본사기자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동포신문 《통일》이 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18일 우즈베끼스딴에서 발행되는 동포신문 《통일》이 특집하였다.

신문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사진을 싣고 평양에서 제14차 **김정일**화축전이 위대한 선군령장을 우러르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떠받들려 성대히 진행되고있는데 대해 소개하였다.

《자력갱생의 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문은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여 우주공간에 날아오르고 CNC공작기계공업이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는 등 공화국이 튼튼한 자립경제에 기초하여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격찬하였다.

신문은 민족최대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이 경축행사들을 진행한 소식들을 실었다.

북침전쟁연습의 중지를 요구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서울 룡산에 있는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3월 8일부터 18일까지 남조선전지역에서 방대한 무력의 동원하에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북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이라고 단죄하였다.

특히 이번 군사연습이 북침선제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침략성은 더욱 뚜렷해지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미국과 현 당국이 겉으로는 《평화》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실지에 있어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행동에 나설 의지조차 없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고 비난하였다.

조선반도긴장을 격화시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책동은 당장 중지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녀성들

동족대결책동을 단죄

남조선의 인터네트방송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당국의 반통일대결망동을 비난하는 가수 신해철의 글이 실렸다.

글에서 가수는 자기가 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축하하는 내용의 글을 홈페지에 게재하였다 하여 공안당국이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탄압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현 《정권》이 악법을 휘둘러 민중에게 공포를 주고 길들이려는 반민주적탄압행위라고 규탄하였다.

글은 북을 《주적》으로 삼고 대결의식을 고취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것이라고 하면서 동족인 북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이 바로 남녘의 민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오늘의 폭압분위기를 온 민중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글은 당국이 반민중적악정에 항의하여 떨쳐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앉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과 사회적정의를 위하여

얼마전 남조선의 어느 한 《안보문제연구소》가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 《북과의 교류확대》를 꼽았다고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북남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을 《북과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북은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동족》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은 전반적인 남조선민심이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동족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할것을 바라고있으며 그에 배치되는 보수당국의 책동을 반대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사대와 매국을 명줄로 부여잡고 북남대결에 기승을 부리고있지만 절대다수의 남조선인민들은 당국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규탄배격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련북통일을 이룩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는 최근 발표한 론평에서 지금 북남관계가 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으로 북남협력을 활성화하여 북남관계를 적극 개선해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해야 하며 북남사이의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리공영의 립장에서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계기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위한 운동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굳센 의지를 과시하였다.

한편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집권유지를 위해 파쑈폭압에 더욱 기를 쓰고 매달리는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오고있다.

얼마전 민주로총은 파쑈경찰이 민주로동당 인터네트홈페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한것은 반민주적인 폭거이라고 강력히 성토하였다. 단체는 현 《정권》하에서 폭압기구를 앞세워 민중의 권리를 짓밟고 민주화를 유린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감행되였다고 단죄하였다. 진보련대도 이번 사건은 민주로동당에 대한 계획적이며 로골적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이 폭력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진보적단체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가로막고있다고 그 범죄적리면을 낱낱이 까밝혔다. 민주로동당은 최근 경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로조의 성원들이 민주로동당에 가입하여 《정치자금을 납부》했다고 떠들어대며 29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놀음을 벌려놓은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이것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야당세력의 손발을 얽어매려는 계획적인 탄압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는 당국이 아무리 검찰, 경찰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을 동원하여 진보세력을 탄압하려고 발광해도 현 집권세력을 심판하려는 민심을 절대로 가라앉힐수 없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민심을 거역하면서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진보적단체들의 합법적활동을 폭력적방법으로 계속 탄압하고있지만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그것을 용납치 않고있으며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사회적정의를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효 진

관광재개를 거부하는 몬당치 못한 행위

북남협력사업을 활성화해나가는것은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고리로 된다. 하기에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악화된 속에서도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금강산과 개성지구의 관광재개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우리는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재개가 남조선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더우기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 되는것이기에 결단을 내려 지난해 8월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범하게 풀어주었다.

하지만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재개문제를 대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실로 놀라움을 자아내고있다.

이미 자기측의 불찰로 발생한 《관광객사건》을 거들며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을 중지시킨 남조선당국은 그후 관광재개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 사업을 방해해왔다. 남조선 《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대결광신자들은 관광중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관광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을 이른바 《3대조건》으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약속이 없이는 관광을 재개할수 없다고 우기였다. 그런가하면 《민간업자와의 합의》는 인정할수 없다고 떠들면서 관광재개의 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지어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이 그 무슨 《북의 돈줄》이라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3대조건》이 해결되다 하더라도 《현금지불방식의 관광은 하지 않겠다.》니, 《투명성 보장》이니 하면서 관광재개사업을 아예 망쳐놓을 흉심을 드러냈다.

금강산과 개성지구의 관광재개를 반대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반통일적립장은 얼마전 개성에서 진행된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마당에서 다시금 립증되였다. 실무접촉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온 남측은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을 시급히 재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대신 구태의연하게 이미 다 해결된 《3대조건》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광재개를 할수 없다고 생억지를 부리였다. 지어 《쌍방립장이 너무 차이가 나니 회의를 그만두자.》느니, 저들의 《제안을 더 연구하라.》느니 하면서 실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였다. 시작부터 이렇게 관광재개를 거부하는 자세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남측은 나중에는 그 누구에 대한 《묵념》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우롱하고 도발까지 걸었다. 결과 실무접촉은 파탄이나 다름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재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를 이렇게 망쳐놓지 않을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파정은 남조선보수패당의 머리속에는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관광사업마저도 받아들일만 한 조그마한 자리도 없으며 오로지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야망만이 꽉 들어차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사업은 북남협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진행되여왔으며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공공연히 부정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데 골몰해온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에 있어서 《6.15의 옥동자》로 불리운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이 곱게 보일리 만무한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보수패당은 이른바 《관광객사건》을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을 중단시킬 좋은 구실로 삼고 그것을 1년나마 우려먹어온것이며 지금에 와서도 그와 관련된 《3대조건》을 계속 운운하며 관광재개사업에 인위적인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있는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불순한 야망만을 추구하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재개를 가로막고있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처사는 지금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비난과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재개사업은 단순히 관광문제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립장문제이다.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재개문제를 놓고 부당한 주장을 고집하면서 그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는것은 명백히 반통일행위이며 시대와 력사앞에 또 하나의 죄악을 저지르는것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은 이것을 똑바로 알고 관광재개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응해나와야 한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외곡보도행위를 규탄

남조선의 《전교조》소속 교원 김형근이 19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수언론의 반통일적인 외곡보도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는 몇해전 학생들을 데리고 《통일애국렬사추모제》에 참가한데 대해 《조선일보》가 《빨갱이교육》을 하였다고 련일 헐뜯은 사실을 폭로하였다.

당시 이 보수언론의 매문가들이 학생들에게 《북을 찬양했는가.》고 따지고들었으며 《학생들이 빨갱이가 다되였다.》는 외곡된 기사들을 보도하였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이것은 오보가 아닌 의식적인 외곡행위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참으로 보수언론의 보도내용들은 전부 숨막힐 정도로 험악하기 그지없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통일을 바라는 학생들에 대한 구속외에 다름이 아니라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때에 입은 상처는 절대로 아물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보수언론이 그토록 악의에 차서 떠들어댄것은 통일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선일보》를 반드시 매장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무엇을 노린 《인권법》조작책동인가

남조선보수세력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날로 더욱 무분별해지고있다. 보수패당이 《국회》에서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걸고들며 그 무슨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조작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얼마전 남조선《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는데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패거리들은 서로 공모결탁하여 이른바 《북인권법》이라는것을 통과시켰다. 그 무슨 《북인권특별위원회설치》, 《북인권대사임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의 내용만 보아도 북남대결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반민족적성격을 직감할수 있다. 특히 《법안》이 《통일부》에 《북인권자문위원회》라는것을 두고 우리와 접촉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통일부》 장관이 직접 《조정》하게 권한을 주도록 규제한것은 남조선보수패당이 이제는 《인권》을 구실로 북남관계를 차단하려 한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반통일악법을 조작해낸것은 두말할것 없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로골적인 의사표시나 다름없는것이다.

보수패당의 악법조작책동과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각계층 진보단체들은 일치하게 《인권의 탈을 쓴 반인권법안》, 《남북관계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법안》, 《북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 등으로 강력히 항의규탄하고있으며 언론들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불쏘시개》라고 평하고있다.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우리 민족끼리》원칙에 기초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파국에로 치달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범하고도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며 일관하게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 한피줄을 나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번영을 이룩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뜨거운 동포애적인 아량이 깃들어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여 동족대결자세를 버리고 화해와 협력,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여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거들며 그것을 구실로 동족대결을 아예 법적으로 고착시키려고 날뛰고있으니 이야말로 공공연한 대결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원래 《한나라당》패들은 집권초기부터 동족을 걸고들며 그 무슨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들고나와 여론화하였다. 뿐만아니라 《북인권증진법안》이라는것을 고안해내여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지난해에만도 《한나라당》의 홍일표라는자는 《국회》에서 그 누구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대화와 협력은 반쪽짜리 유화정책에 불과하다.》고 망발하면서 《국회》에서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북인권법》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고 들고나왔었다. 허나 그것으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수 없었으며 저들단독으로 처리할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을 끌어들여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킨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이 악법을 2월중의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켜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명백히 하건대 인민대중이 정권과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온갖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참답게 행사하고 자주적인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권》문제란 애당초 제기조차 될수 없다.

사실상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인권말살지옥은 남조선이다.

현 《정권》이 출현하면서 남조선은 파쑈통치가 부활되여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깡그리 말살된 암흑사회로, 독재와 폭압이 란무하는 인권의 무덤으로 더욱 전락되였다. 지금 《실용》독재는 과거 군사파쑈독재를 훨씬 릉가하고있다. 남조선을 외세에 통채로 내맡긴 반역통치배들은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파쑈폭압의 칼을 휘두르며 통일애국세력들은 물론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진보적언론에는 파쑈의 자갈이 물려지고 로동운동마저 무자비한 폭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자들이 주제넘게도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고있으니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보수패당은 제코나 씻는것이 좋을것이다.

확실히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인권을 보는 눈이 잘못되였다.

아마 사람들은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출현하여 선행 《정권》에서 조직된 독자적인 기구인 《인권위원회》를 대폭 축소한 사실을 잊지 않았을것이다. 명목은 《예산을 절약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것이였다. 당시 남조선각계는 억압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의 《마지막보루》라고 할수 있는 《인권위원회》가 껍데기만 남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를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권훼손, 리명박《정부》의 반인권적통치지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항의규탄하였다.

실제로 보수패당은 《인권위원회》가 저들의 파쑈통치에 장애로 되기때문에 기구축소에 달라붙은것이다. 《인권위원회》가 지난 시기 《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에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당국에 그 개선을 요구해온 사실, 특히 미국산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초불시위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한 경찰우두머리에게 징계조치를 내릴것을 주장하고 룡산철거민학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전면조사할것을 요구해온 사실, 《한나라당》패들이 추진하는 《국정원법개정안》, 《싸이버모욕죄신설법안》 등을 반인권적법이라고 반대해온 사실들이 보수집권세력의 눈에 곱게 비쳐질리 만무한것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저들의 인권죄악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그토록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다.

보수집권세력은 갈수록 더욱 더 집권위기에 시달리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정치는 개판이 되고 경제와 인민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였다. 지난 1월 당국이 공식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실업자수는 121만여명으로 늘어나 최고에 달하고있다. 민심은 급격히 악화되고있으며 반《정부》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러한 정치적위기로부터 벗어나 더러운 명줄을 부지하며 저들에게 쏠린 화살을 돌려세우기 위해 그토록 《북인권법》조작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자멸만을 촉진시키는 행위일뿐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인민의 값높은 존엄과 인권에 대해 함부로 걸고들고 모독하는자들은 무사히 못할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 철 순

사회주의수호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선군령장

경축행사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꾸바혁명무력성에서는 친선모임이, 바꾸라나오농목축기업소에서는 집회와 영화감상회가 5일과 10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꾸바혁명무력성,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꾸바준비위원회, 바꾸라나오농목축기업소의 인사들과 군중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바꾸라나오농목축기업소 부지배인은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업을 훌륭히 보좌해드리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후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을 진두에서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통일운동의 앞길에 난관이 조성되고있지만 꾸바인민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이룩될것이라고 확신한다.

올해는 김일성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지 30돐이 되는 해이다.

꾸바인민은 올해에도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그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올해에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올해는 또한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이 되는 해이라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께서 계속 꽃피워나가시는 두 당, 두 정부, 두 인민사이의 친선관계가 진실한 협조와 존중의 관계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탄생일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상영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남아프리카, 벌가리아, 스위스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들에는 방글라데슈로동당, 민족사회주의당, 사회주의당,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남아프리카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벌가리아반파쑈동맹, 쏘피아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로동당 (공산주의자), 주체사상연구소조, 스위스조선위원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라쉐드 칸 메논, 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하싸눌 하크 이누는 김정일각하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조선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실뿐아니라 인류자주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친근한 어버이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정일각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조선당과 정부, 인민이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강성대국건설과 조선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인 남아프리카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보나켈레 마주바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고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였으며 비날론솜이 폭포치며 쏟아지는 등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희한한 현실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는 올해의 2월 16일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이 되는 해에 맞이하는것으로 하여 더욱 뜻깊은 명절로 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업적을 찬양하였다.

그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나라의 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벌가리아와 스위스에서 진행된 집회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신문이 기념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 12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자주의 리념》, 《자주의 기치높이》, 《자주정치의 승리》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들에서 나라의 존엄과 위력은 자주에 있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가며 대외관계에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이 그것을 실증해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투철한 자주리념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를 종합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는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의 기치높이 승승장구의 력사를 창조해왔다.

조선은 최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강경대응해나감으로써 나라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고있다.

조선의 현실은 자주는 진리이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자주의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언제나 필승불패할것이다.

인디아신문 《제이. 엠. 디. 바라트》 13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김정일령도자의 담력》, 《희천속도》 등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신문은 《다박솔초소의 설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995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령도자께서 다박솔초소를 시찰하시였다고 하면서 다박솔초소의 설경은 오늘날 조선인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대의 절경중의 하나로 되고있다고 전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이 대국상을 당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다박솔초소를 찾으심으로써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은 지난 15년간의 실체험을 통하여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정의롭고 위대한 생활력을 가진 정치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조선인민이 다박솔초소의 설경을 그처럼 사랑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고 강조하였다.

쿠웨이트신문 《쿠웨이트 타임스》 16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사진들을 모시고 《〈우리 민족끼리〉 리념과 김정일》, 《주체철생산체계완성》 등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조선의 자력갱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력갱생은 조선인민의 고유한 혁명방식중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데 대해 소개하고 조선의 자력갱생은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나라의 륭성번영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조선의 인민적시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의 인민적시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롭게 미치는 시책,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종일관하게 실시되는 시책,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는 시책이라고 격찬하였다.

영국신문 《더 뉴 워커》 12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사진을 모시고 그이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실었다.

불레찐 발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에서 11일 블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원수께서는 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아드님으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수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였으며 실천경험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김정일원수께서는 가장 엄혹했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선군정치는 나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나라의 방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되였으며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적도 무자비하게 타격할수 있는 강군으로 자라났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전체 조선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다.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목숨 바칠 조선인민의 각오는 확고하다.

그 어떤 힘도 조선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할것이다.

김정일원수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와 자주권을 위한 투쟁의 불패의 보루이다.

김정일원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인민군 만세!

본사기자

위인칭송의 꽃축전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반향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제14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보여준 뜻깊은 축전이였다.

축전장을 참관한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흥분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일본주체사상연구대표단 단장 요꼬우찌 유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화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불멸의 꽃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에 대한 만민의 열렬한 칭송을 느끼게 되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 김정일총비서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

핀란드 몬도 미네랄즈회사대표단 단장 클라우스 라이더스는 축전장에는 남조선인민들이 보내여온 김정일화들도 있다, 이곳을 참관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흠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알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몽골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성원 느. 쏘욜게렐은 세계원예박람회들에서 최고상을 받은 김정일화는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꽃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불멸의 꽃들을 보면서 절세위인에 대한 신뢰의 정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프랑스제2차판광단 성원 니콜라스 포게레 안쎌미는 김정일화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여났다, 축전장이 참으로 훌륭하다, 이런 축전은 조선에서만 볼수 있다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은 활짝 피여난 김정일화들앞에서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로고가 되새겨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불멸의 꽃들을 더 훌륭히 피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길이 전해갈것이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자는 축전장에는 재일동포들이 보내여온 김정일화들도 전시되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만 굳게 믿고 따르려는것은 자기들모두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참관을 통하여 세기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고 말하였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축하단 성원 한 류드밀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무슨 말로 불멸의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축전장이 너무도 황홀하여 떠나고싶지 않다.

김정일화축전은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고결한 충정이 분출되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앞으로도 축전이 성대히 진행될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지난 10년동안에 1 134만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하였다.

이 기간 특히 벌거숭이산과 황무지들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자치구에서 산림조성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생태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있다.

모잠비끄에서

모잠비끄에서 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해 앞으로 3년내에 4개의 과학기술지구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얼마전 첫 과학기술지구건설착공식이 마뿌또주에서 진행되였다.

부지면적이 950ha에 달하는 이 과학기술지구건설공사는 다음해 1월에 완공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뻬루에서

뻬루에서 지난해 12월에 금속제품수출액이 그 전달에 비해 2.6% 더 늘어났다.

지난해 이 나라의 총수출액가운데서 금속제품수출액은 60.9%를 차지하였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올해 1월에 18만 1 400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조성하였다.

본사기자

마로끄의 항

중국 미국을 신랄히 비난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19일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집권자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를 만난데 대해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의 이와 같은 처사는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에 심히 위반되고 중미사이의 3개 공동콤뮤니케와 중미공동성명에서 확정한 원칙에 어긋나며 미국정부가 여러차례에 걸쳐 《티베트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것으로서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견결히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립장을 진지하게 대하고 부정적영향을 가시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티베트독립》분렬세력에 대한 지지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지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서방의 제재책동에 경고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제재책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최근 서방이 이란의 평화적핵계획을 걸고들면서 새로운 제재를 가하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지난 시기의 오유를 되풀이하는것으로서 이란인민에게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란을 반대하는 그 어떤 조치가 실행되는 경우 자기 나라는 말로가 아니라 강력한 보복조치로 그에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기도를 단죄

아랍국가련맹 총서기 아므루 마흐무드 무싸가 19일 레바논방문과정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모한 침략기도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지금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고 하면서 아랍국가련맹은 이 나라를 침략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일 이스라엘이 끝끝내 침공을 감행한다면 아랍국가련맹은 레바논인민과 한편에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반침략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본사기자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까자흐스딴이 11일 수력발전소건설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한편 최근 에티오피아와 케니아는 전력공업부문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반인륜적폭압과 살인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18일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또 감행하였다.

이날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2기의 미싸일을 발사함으로써 3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미군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주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계속 감행하면서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있다.

14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8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체포해갔다.

이보다 앞서 12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헤브론시에서 이스라엘군이 한 팔레스티나인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살해하였으며 11일 가자지대에서는 2명의 어린이가 이스라엘군이 쏜 땅크포탄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경제형편에 비관

유럽인들속에서 경제형편에 대한 비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8일 유럽동맹위원회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올해 2월현재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소비자신용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1.6점 또 떨어졌다고 밝혔다.

콜레라피해

캄보쟈에서 콜레라가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최근 이 나라 보건성은 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지난해말이래 지금까지 128명의 콜레라환자가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만지역 정세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군사적행동

최근시기 페르샤만지역정세가 심상치 않다.

얼마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정부가 이란의 《미싸일공격가능성》에 대비하여 만지역 나라들에 대한 미싸일방위체계배비를 다그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군은 만지역에 《패트리오트》 미싸일중대들과 중거리 미싸일을 요격할 사명을 지닌 《이지스》함선을 배치하고 이 지역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경계를 편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핵무기개발》로 몰아붙이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공세를 강화하여왔다.

미국은 유엔을 통한 대이란추가제재실시를 추구하는 한편 만지역나라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확대하여 대이란포위환을 형성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미중앙군사령관은 이란이 명백히 미국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아랍추장국련방 공군이 혼자서도 《전체 이란공군을 소멸할수 있다고 본다.》고 단언하였다. 최근에 미국은 1만명으로 구성된 보안군의 규모를 3배로 늘이려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계획을 적극 후원하는것을 통해 만지역 나라들의 반항공무력체계들과 미군사이의 군사작전상능력조정을 진행하고 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하려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핵문제》를 트집잡아 중동지역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만지역 나라들을 군사력증강에로 부추김으로써 원유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 나라들을 대상으로 무기장사를 하는것과 동시에 이란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할것을 노리고있는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년동안에만도 미국은 아랍추장국련방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 나라들에 250억US$어치의 무기를 팔아먹었다. 미국은 만지역나라들의 군사력증강조치가 《고무적인 일》로 된다고 하면서 이 나라들이 이란의 핵시설들에 대한 공격이후에 가해질 《보복타격》을 우려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있다고 선전하고있다.

이란은 만지역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조치를 자국을 제압하기 위한 위험한 기도로 간주하면서 경계심을 높이고있다.

지난 2일 이란국회 의장은 미국이 만지역에 많은 무기들을 계속 들이밂으로써 복잡한 문제들을 산생시키고있다고 강조하고 만지역 나라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키면서 이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려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금 이란은 만지역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책동이 《이란공포증》을 불러일으키려는 음모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이웃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중시하고있다.

한편 이란은 더욱 로골화되는 미국의 반이란군사적공갈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이란군 합동참모장은 자국군대가 미국의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체계를 《간단한 방법으로 무력하게 만들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역나라들, 특히 이슬람교나라들이 파악이 없는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체계를 받아들이느라 자금을 랑비하지 말것을 호소하면서 그것은 만지역나라들의 재부를 고갈시키려는 미국의 새로운 계략에 말려드는 처사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이란군대변인은 이란이 성능면에서 로씨야의 반항공미싸일종합체 《C—300》에 뒤지지 않는 대공미싸일종합체를 개발하였다고 공개하였다. 그는 이란군이 가까운 시기에 새로 개발된 대공미싸일종합체로 무장할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반항공분야를 포함한 각이한 분야에서 민족무력의 장비를 자체로 보장할데 대한 계획의 테두리내에서 실현되고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밖에도 정찰과 공격능력을 다같이 겸비한 무인기의 계렬생산에 들어갔다. 이란의 무인기는 높은 정밀도와 장거리비행능력을 가지고있어 정찰 및 공격임무를 동시에 수행할수 있다고 한다.

여론들은 만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배비와 군사적간섭책동에 대응한 이란의 군사력강화조치는 중동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보다 첨예한 사태가 조성될수 있다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조택범

최신형전투기도입문제를 둘러싼 모순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스텔스기술과 초음속비행능력을 갖춘 전투기도입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

미국은 이미 최신예스텔스전투기 《F—22》를 5세대주력전투기로 배비하였다.

일명 《랩터》라고 하는 《F—22》전투기는 값이 비싸고 성능도 높다고 한다. 이미 187대의 《F—22》전투기를 보유한 미국은 이 전투기를 더 늘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값이 상대적으로 눅은 다목적전투기 《F—35》를 추가생산하기로 결정하고 그 공동개발을 다그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전투기의 핵심부분을 누구에게도 내놓으려 하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동맹국들로부터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일본의 한 신문은 《〈F—35〉기의 〈두뇌〉를 공유하지 않는다, 미국방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국방성관리가 다음세대 주력전투기를 조종하는 쏘프트웨어를 이 전투기공동개발에 참가한 영국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밀을 엄수하는것과 함께 전투기개발에서 차지하고있는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딸리아와 네데를란드 등 다른 공동개발국에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다.》

《쏘스코드》로 불리우는 이 쏘프트웨어는 《F—35》기의 전자두뇌의 중추부라고 한다. 《쏘스코드》의 공유를 요구하고있는 영국은 미국이 자기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공동개발에서 손을 뗄 의향을 표시하였다.

《F—35》기의 도입을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사이에도 의견상이가 발생하였다. 《F—35》기를 주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 전투기의 콤퓨터체계들을 자체로 정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미국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F—35》기의 콤퓨터체계들을 독자적으로 정비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이스라엘공군이 이 전투기를 제작하는데 리용된 비밀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진의도를 모를리 없는 이스라엘은 볼이 부어 작전상요구로 하여 《실시간》에 고장나거나 전쟁도중에 정비를 위해 바다건너 미국으로 콤퓨터체계들을 날라가겠느냐고 투덜댔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콤퓨터체계들이 파괴되는 경우 대신 설치할수 있는 예비콤퓨터체계들을 제공하겠다고 이스라엘을 달래는 한편 파괴된 체계들은 정비를 위해 미국으로 꼭 가져와야 한다고 그루를 박았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쓴입만 다시였다. 이미 이스라엘공군은 25대의 《F—35》기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방성에 공식요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 못지 않게 일본도 다음세대 주력전투기구입에 열을 올리고있다. 처음 일본은 미국이 보유하고있는 《F—22》전투기들을 구입하여 저들의 뒤떨어진 전투기들과 교체할것을 계획하고 《F—22》전투기도입을 추진시켜왔다. 이전 자민당정부는 《F—22》전투기의 대일수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행정부에 보내는 등 부산을 피웠다. 그러나 미국은 《랭전이 끝나고 이전 쏘련과 같은 적수가 사라진 지금에 와서 그런 최신형전투기가 어디에 필요한가.》고 하면서 일본에 《F—22》전투기보다 한단계 아래급으로 알려진 《F—35》기를 도입하라고 권유하였다. 미국방성은 지난해 일본방위성이 《F—22》전투기의 성능과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것을 청탁한데 대해 《그 전투기에 대한 수출금지조치가 계속 취해지고있는 미국회의 상황》을 리해하여달라는 식의 애매한 대답을 하였다.

미국방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F—22》전투기를 구입하는 경우 터무니없이 많은 자금이 들것이다, 그만한 돈으로 《F—35》기를 도입하는편이 나을것이다라고 훈시하였다. 더는 《F—22》전투기구입에 기대를 걸수 없게 된 일본은 하는수 없이 《F—35》기를 택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F—35》기는 미국, 영국, 이딸리아, 네데를란드 등이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다. 그런데 일본은 《무기수출3원칙》에 목이 매여 전투기공동개발에 참가하지 못하고있다. 《F—35》기는 2010년대 중엽부터 운용되는데 이 전투기개발에 참가한 나라들에 대한 조달이 우선시된다고 한다. 이에 바빠난 일본은 자기 나라가 《F—35》기개발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우선적으로 전투기를 조달받을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부분품을 생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 그 개발에 참가하려 하고있다.

다음세대 주력전투기배비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움직임은 동상이몽하는 미국과 그 동맹자들사이의 모순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조성철

ㄱ-01031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